

배포일시	2021. 6. 9.(수) 14:30 (총 4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관 측 정 책 과 대 전 청 관 측 과	담 당 자	과 장 연 혁 진 과 장 박 관 휴	전화번호	02-2181-0692 042-363-3560

여름철 위험기상의 침병 '기상1호' 및 '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' 최종 점검

-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**6월 9일(수)** 여름철 위험기상을 대비하기 위해 기상관측선 '기상 1호'와 우리나라 최서단 격렬비도 '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'를 최종 점검하였다.
 -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최전선인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를 방문하여 기상관측의 중추기지 현장을 직접 점검하였다.
- '기상 1호'는 지난 2011년 5월 운영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관측선으로 장마전선, 태풍 등 위험기상 접근이 예상되는 길목에서 선행 관측함으로써 정확한 기상 예·특보의 침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.
- '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'는 2005년 충청남도 북격렬비도에 설치된 첫 번째 해양기상관측기지로써, 낙뢰·황사 등 8종의 관측장비에서 28개의 관측요소를 생산하여 서해상으로 접근하는 위험기상 조기 탐지와 예측 정확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.

- 기상청은 올해 말에 제2 기지(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)를 완공하고, 2023년에 제3 기지(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)를 설치하여 서해의 종합적인 해양기상관측망을 완성할 계획이다.
-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호우, 태풍 등 위험기상이 발생하는 최전방인 해상은 내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관측장비 운영이 어려운 실정”이라며, “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하여 기상 1호와 서해종합기상 관측기지를 적극 활용하여 기상 감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| 기상 1호에서 관측장비를 점검하는 박광석 기상청장(가운데) |



|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현장을 점검하는 박광석 기상청장 |

- 붙임: 1. 기상 1호 주요 특성
- 2.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관측망

붙임2
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관측망


구분	운영목적	위치	구축기간	주요관측장비
제1 해양 기상기지	충청권 위험기상 감시	북격렬비도 (우리나라 최서단)	2003 ~ 2005	(지상) 자동기상관측장비, 낙뢰기상관측장비 (환경) 황사관측장비 (고층) 연락바람관측장비, 라디오미터 (지진) 지진관측장비
제2 해양 기상기지	수도권 위험기상 감시	덕적도 (수도권 근거리)	2019 ~ 2021	(지상) 자동기상관측장비 (환경) 황사관측장비 (고층) 연락바람관측장비, 자동고층기상관측장비, 라디오미터, 윈드라이다 (해양) 해양기상부이
제3 해양 기상기지	호남권 위험기상 감시	안마도 (전라남북도 경계)	2021 ~ 2023 (예정)	(지상) 자동기상관측장비 (환경) 황사관측장비 (고층) 연락바람관측장비, 자동고층기상관측장비